

다기능적 변형 상자

국내 사업화 모색

김 학 경 / American Package Design Inc 대표

인 송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는 상자의 역할이 지대하며, 모든 운송수단, 포장수단, 저장수단 등이 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자는 1894년 발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106년 동안 우리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그 모양과 크기가 한 디자인 한 상자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상자를 사용할 때 그 상자에 맞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상자에 맞추는 불편함을 감수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다기능변형상자'는 기존 상자의 불편함을 개조하여 임의로 상자의 크기와 모양을 조절 가능케 함으로써 상자의 사용기능을 다양화 한 것으로 전세계인의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동일한 제조원가로 엄청난 다기능효과를 나타내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의 박스가 폐지수거방식의 재활용 제품



이라면 이 제품은 recycling이 필요 없이 사용자가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환경친화적 제품이다. 유통되는 박스가 2~3번만 재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펄프사용량이 줄어 펄프를 수입해야 하는 국내의 경우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외화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점차 각 가정에서 선물을 포장하고 전달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 비싼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포장할 때마다 원하는 모양과 크기의 박스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다기능변형상자'를 활용하면 각 가정에서 몇 개씩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택배물류회사 등에서는 각 크기에 맞는 박스를 고르게 갖추고 있어야 하고 각 종류의 박스에 대해 각각 재고관리를 해야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각 가정이나 회사에서 물건을 민간택배나 우체국 등을 통해 보낼 때 원하는 크기의 박스


가 없는 경우엔 포장종이로만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운송취급과정에 물건의 파손 등이 우려되고 고객의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모든 택배물건이 박스로 안전하게 포장되어 운송되므로 운송 취급시 편리하다.

이런 특징 외에도 기존의 박스는 물건을 구입한 후 내용물을 꺼내고 박스는 바로 버리게 되나 이 제품은 박스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게 되므로 박스에 광고문안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미국내에서 우편소포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는 US Post Office, UPS, Fedex, DHL, AirBorn 등이며 그 중에서 US Post Office의 경우 Priority 2-day Service에 사용되는 소포박스가 연간 13억개에 이르며, express mail과 regular mail까지 합친다면 연간 15억개 이상이 소비되고 있다. 미국내 전체 소포박스 사용량을 업체별로 보면 UPS가 53%로 가장 많고, 다음이 US Post Office로 23%, Fedex가 10%이고 기타가 14%이다. 이외에도 MailBox Etc, Package Store, Corporate Express, PAK mail 등 크고 작은 업체가 3만개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스제조용 골판지 생산

량이 99년 3,376,000천㎡(금액1,3조원)→박스 1개당0.5㎡기준시 연간 총 67억개 박스가 생산되고 있다.

김학경 사장은 특허제품인 '다목적변형상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업체나 수요업체 등에 전용실시권 또는 특허권양도를 통해 사업화 시킬 계획이다. 

권해진 기자

독 자 컬 럼 신 설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신설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